

社說

학문적 내실 기하는 계기되길

— 안식년제 실시를 기대하며

최근들어 국내의 일부 대학에서 시작한 안식년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급진 2학기부터의 실시를 목표로 행정당국에 의해서 신중하게 연구 검토되어지고 있다는 매우 바람직한 소식이다. 즉 지난 1990학년도 1학기 정년퇴임식 및 전체 교수회의 석상에서 조영식 총장은 교수들이 그토록 숙원해 왔던 안식년제를 조속히 도입할 뜻을 밝힌 이후, 기획관리실의 실무진들에 의해 빠르면 이번 2학기부터의 적용을 위해서 그의 실행방법 등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안식년(일)제의 근원은 사실 기독교 교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애당초의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휴식의 의미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경우 안식일에는 상거래뿐만 아니라 가무와 오락 등 거의 모든 활동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안식년제는 휴식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교수가 이 기간을 활용하여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함으로써 스스로 내실을 기하고 보다 알찬 강의를 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사회를 위해 보다 더 공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대학교수의 역할은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를 강의하며, 나아가서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지도할

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점차 이 나라를 걸머지고 나아가갈 국가의 동량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들 세가지 역할은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우열을 가르기가 매우 힘들지만, 이 중에서도 연구는 다른 두 역할의 기본이 됨으로써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적으로 연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학생들이 교수를 학문적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인격적인 지도는 보다 용이해지게 된다. 그런데 자금의 우리 현실은 지나친 강의 부담과 학생지도 때문에 대학교수가 제대로 연구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 더욱이 해외로 나가서 외국 학문과 우리것을 비교·연구할 기회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 결과 학문적으로 부실하게 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사회로부터 인

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내문제와 밀미로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금번 추진 과정에 있는 안식년제는 교수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나아가서는 국가사회를 위해서도 크게 공헌하는 제도가 될 것이 틀림없다. 단지 이 제도로 인해서 학교당국으로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새로이 안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언제 인가는 팔히 시작해야만 할 제도가 될 것이 모처럼 결심한 이상 이번엔 꼭 정착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들 함께 기대해 보기로 하자.

가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면 그들이 이같은 환상을 버려도 오래전에 버렸을 것이다. 국민의 저항을 유발하는 '원천'은 정권 자체의 부도덕성과 비민주성, 반민주성이다. 이같은 원천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저항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나서고, 그 봉쇄의 효력을 신봉하는 것은 내장이 썩어가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음으로써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동일한 차원의 환각이고 미신이다. 이 미신의 신봉자들은 공권력 투입으로 국민적 저항을 봉쇄했다고 믿고서 자기네끼리 축제를 들지 모르지만, 그 축제를 향해 국민은 아무도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고 국민이 박수를 보내지 않는 '원천봉쇄'는 백년 전만 물리적 5·6공을 거두어도 정치적으로는 완전 실패이다. 아니, 물리적 원천봉쇄가 성공하

민중기반의 정권으로 거듭나야 — 공권력 남용을 경계한다

6공이 5공으로부터 연면히 풀려 받고 있는 많은 전통들 가운데 '원천봉쇄'란 것이 있다. 공권력이란 이름의 물리적 힘을 투입하여 재야, 노동계, 학생들의 대중적 행사나 집회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 이른바 원천봉쇄라는 것이다. 이따금 군부통치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집권세력이 의존

해 온 이 봉쇄전술은 두개의 환상 속에 근거하고 있다. 부도덕한 정권이 물리적 힘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번째 환상이고, 이른바 '원천' 봉쇄라는 것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번째 환상이다. 집권세력이 제대로 머리가 돌아

토지거래 정상화 향하는 디딤돌

토지공개념법안 마련 즈음하여



토지공개념이란 말은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 등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토지는 자연이 인간 모두에게 준 생존과 생산을 위한 자원이므로 그것은 단순한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공적 재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토지, 배분, 이용 및 거래가 정상화 되도록 하자는 생각인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공개념의 실천 원리는 생활과 생산을 위한 적정규모의 토지의 소유·이용·개발 등은 보호하고 그것을 넘어선 자산증식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중하는 것

의 효율성이고 그리고 토지거래질서의 확립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토지자원배분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는 토지의 양적인 배분의 정의와 토지 가치 배분의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다. 양적인 배분의 정의는 택지소유상한제 및 농지소유상한제를 근간으로하여 이를 각각 '택지소유상한제'와 '농지소유상한제'로 뒷받침하고 있다. 토지가치배분의 정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불로소득적 증가분을 환수하여 그것들 다시 국민복지를 위해서

국도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가적 경제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헌법 제120조),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공익성과 사회성에 근거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소유권의 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민법 제2조). 특히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여 (민법 제212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내용인 토지의 사용·수익·처분권 역시 법률의 범위내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토지나 자원에 대한 규제는

웅크리고 교수를 응시하는 암사자

5월주제 '별명'

위낙 평범하게 생겨서 외모 때문에 얻은 별명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몰두하려는 기질 때문에 얻은 별명은 몇 개 있다. 유년시절의 나의 별명은 '소속은 귀신'이었다. 외할머니의 자랑이시였다. 6.25의 전란은 우리집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갖서론에 혼자 되신 친정어머님은 울음줄만 마다 아이들의 끼니를 위해 다치는대로 일거리를 찾아다니셨기 때문에 외할머니께서 살림을 맡아 하셨습니다. 굶느냐 먹느냐의 당면문제도 집안은 평평한 긴장과 불안에 차 있었고, 아드님과 사위를 한꺼번에 전쟁에 잃으신 할머니의 슬픔과 한(恨)은 우리를 기억해 주었다. 둘째인 내 입부는 제재소에 가서 톱방과 나무공예를 연다 때로 밥도 지어야 했다. 그런데 물집이 무마가 제대로 탈리가 없었다. 밥은 3층이 되고 부엌은 연기로 휩싸여 나는 마치 호랑이를 잡으려고 사냥꾼이 불을 때는 굴속에 갇힌 듯 했다. 그러나 밥하는 일을 죽기보다도 싫어 수밖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불쏘시개로 얻은 신문 잡지나 부엌이 들을 움켜쥐고 골방이나 개울가로

기쁨은 하늘에 다왔고, 의욕은 넘쳤다. 무엇이든지 열심히였다. 책읽고, 놀고, 마시고, 연애하며 그야말로 나 중심의 생활을 치우치자 마지막 으로 만곡한 시절이 나의 대학생활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나를 친구들은 '암사자'라고 놀려댔다. 특히 강의실에서 웅크리고 교수 응시하는 내 모습은 출사 공적대상을 앞에 두고 기회를 엿보는



안영수 <문대교수·영문>

암사자 같다던가. 젊은 시절에도 '제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을 알았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학과장을 소개하는 가운데 사촌지기가 붙여주었다. 내 때에는

무엇이든 몰두하는 성격덕에 얻은 훈장

도망가서 몇시간이고 그것들을 읽으면서 보냈다. 어떤 때는 할머니가 지적에서 부르셔도 독서삼매경(?)에 빠진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이런 나를 외할머니께서는 '무엇이든 몰두하는 성격'이라고 부르셨다. 그 다음 생각나는 별명은 '암사자'이다. 돈이 없어 대학진학을 못하고 3년간을 좌절의 늪에서 휘청대다가 운 좋게 경제대 특채시험에 합격이 되었다. 나의

마음씨 좋은 누나로, 어머니로 학생들에게 비치기를 원했는데, 학과장 역할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모르지만 이 별명을 받은 것 같다. 그러나 스스로는 자위한다. 무엇을 하든지 몰두하려는 노력 때문에 생긴거라면 어떤 별명이라도 찬사자'이다. 돈이 없어 대학진학을 못하고 3년간을 좌절의 늪에서 휘청대다가 운 좋게 경제대 특채시험에 합격이 되었다. 나의

고(高) 황(皇) 만(滿) 평(平) "대동계 풍속도 - 酒池肉林" (Illustration of a man with a large sack labeled 'IRA' and a woman, with a sign '대동계 풍속도 - 酒池肉林')

자산증식노린 비정상적 토지거래 규제해야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현된 개발이익은 양도소득세로, 미실현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토지초과이득세를 신설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거래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되는 자가상승과 이로 인한 토지투기로 인한 비정상적인 토지거래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토지거래허가신고를 만들고, 관련계약서의 사용, 부동산 등기의 무효화, 다원화되어 있는 공적 지가를 공식시가지로 일원화하여 지가의 안정과 공적지가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는 먼저 헌법의 사회국가적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현대에 이르러 독립자본주의적 경제질서와 근대적 자유소유권의 폐해를 수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한 헌법적 원리가 사회국가의 원리인 바, 현대 헌법은 자본주의적 소유질서의 폐해를 수정·극복하고 사회국가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재산권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필요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고(헌법 제23조),

국제사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종의 국제적 협약이나 조약에서 국제적 영역이나 자원에 대한 공개념이 규정되어 있는 바, 바로 '인류공동유산개념'이 그것이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은 심해저 및 그 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선언하여(협약 제136조), 어떤 국가도 심해저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으며, 심해저 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제사회가 대표하여 전체로서의 인류에게 속한다는 것

상대적 박탈감은 회의주의로 귀착...사회 강력범죄의 요인으로 작용

이다. 또한 남극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이를 특정 국가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모든 국가의 의사결정 및 공동한 참여하에서 '인류공동유산'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남극협약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1966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외기권조약) 제2조에서도 의

정갑용 <법대강사·국제법>

계획이 많으면 집중하기도 어렵다.

기말고사 때문에 공부 안하면서 몇번씩 다짐했다. 이번 여름방학엔 전공 실력을 확실하게 다져놓아야. 한번의 방학에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더라도 좋습니다. 자기가 학기중에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을 잘 풀라 거기에는 시간과 정력을 한번 아무렇게 기울여 보십시오.

마치 돋보기에 모여 쬐는 빛이 종이를 태우는 강렬한 에너지가 되듯 지혜로운 계획 가운데 관심과 노력을 모아 힘써 보낸 여름방학은 당신의 대학생활과 인생의 값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8번의 방학동안, 8개의 큰 성취의 봉우리를 당신의 대학생활에 솟아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